

# 2024 June Hana Market Monthly

연구위원 서정훈  
Tel. 02-729-0195  
seojh@hanafn.com  
연구원 이유정  
Tel. 02-729-0190  
yjlee.r@hanafn.com



## 목차

---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

# 금리

## 5월 동향

**연준 의장의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 일축에 대한 영향이 완화적으로 인식된 가운데 대내적 한은 총재 기조도 금통위 이후 비둘기적으로 해석되면서 국고채 금리는 전체적으로 하방 흐름 강화 양상 시현**

5월 FOMC의 금리인상 가능성 일축 등의 비둘기적 기조 속 미 고용 부진과 대내적 추경 가능성 약화 등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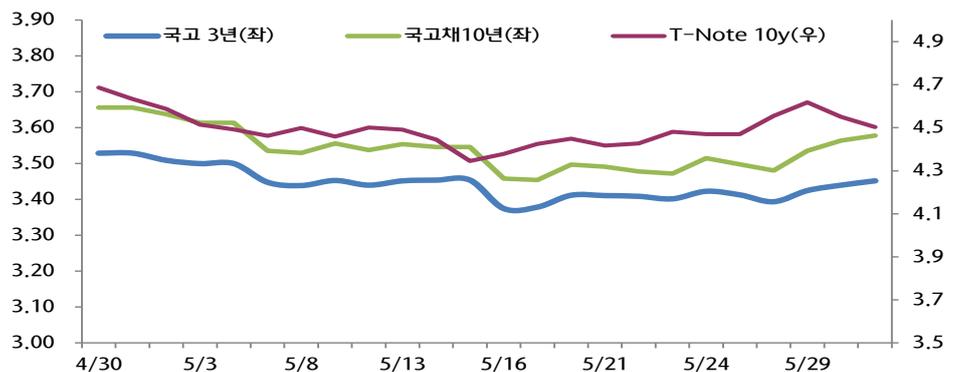
4월 미 CPI와 소매판매 등 주요 경제지표가 약화된 가운데 연준의 비둘기적 언급이 국내외 금리 하락에 영향

한은 금통위 금리 동결 속 시장 기대보다 비둘기적이었던 회견 등으로 금리 하락 추세 이어졌지만, 주요 연준 당국자들의 매파적 금리 언급 등으로 상승 추세 전환하며 마감

5월 평균  
국고채(3년): 3.44%  
T-Note(10년): 4.49%

- 월초, 5월 FOMC 결과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일축하는 등의 비둘기적 기조 인식 등으로 하락 출발 후, 미 고용지표 부진과 대내적 추경 가능성 약화 등으로 하락 기조 이어간 영국
  - 월 초, 5월 미 통화회의에서 금리인상을 일축하는 연준의장 회견이 비둘기적으로 해석된 영향 반영하며 국내외 금리 하락 출발. 하지만 한은 총재의 통화정책 재점검 언급 등이 다소 매파적으로 인식
  - 이어, 연준 당국자들의 매파적 성향 피력에도 고용지표가 다소 냉각 조짐을 보인 점이 금리 인하 기대를 높인 가운데 대내적 정부 당국의 추경 가능성 언급 부재 등도 국고채 금리 하락에 영향
- 중반, 미국의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등이 연준 당국자들의 매파 성향에 영향을 미쳤지만, 4월 CPI와 소매판매 등이 예상치를 하회한 가운데 연준의장의 다음 연준 움직임에 대한 비둘기적 언급 등으로 국내외 금리는 하락 추세를 유지한 국면 시현
  - 중반, 미국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연준 매파성향 강화 속에 대내적 4월 수출입 물가지표 상승 등의 영향 반영된 측면이 국고채 금리 상승 흐름에 영향
  - 여기에 4월 미 CPI와 소매판매 지표 등이 예상치 하회한 가운데 파월 의장의 '다음 연준 움직임이 금리인상일 것이라 생각지 않는다'는 비둘기적 언급 파급 영향 등으로 국내외 금리 하락세 유지한 국면
- 후반, 한은 총재의 시장 기대보다 비둘기적 회견 내용 반영하며 금리 하락 추세 이어진 가운데, 미국 1분기 GDP 확정치가 다소 낮게 나오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화되었지만 연준 당국자들의 매파성 언급 등으로 미 국채 금리 상승에 연동하며 국고채 금리도 상승 흐름 마감
  - 후반, 한은 금통위에서 총재의 현 대내적 상황에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의견 등이 다소 비둘기적으로 해석된 가운데 수급적 영향도 국고채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친 영국
  - 하지만, 글로벌 물가지표 상승 소식 속에 미 국채 입찰 부진 등에 따른 수급적 미 금리 상승 추세 동조화 속 연준 베이지북의 전반적 경기 확장세 평가 등에 의한 매파 반영 등으로 미 국채금리 상승에 연동하며 마감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하나은행. 단위 %

## 6 월 전망

미 제조업 경기 등의 위축 국면 속 ECB와 주요국 통화완화 기대는 국내외 금리 하락 요인으로 판단. 다만 여전히 연준 매파 성향, 국내 견조한 경기 흐름과 물가 상방위험 경계 등이 하단 지지할 전망

평균	1Q24	2Q24	3Q24	4Q24
국고채(3y, %)	3.30 <sup>(F)</sup>	3.50 <sup>(F)</sup>	3.40 <sup>(F)</sup>	3.20 <sup>(F)</sup>

미국 물가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히 강한 상황에서 연준의 매파 성향도 이어질 전망. 하지만 향후 추가 인상 배제 속 최근 제조업 위축 확대 등으로 9월 금리인하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

- 미 물가지표 하락세에도 여전히 경계감 높은 상황. 이에 대한 연준내 매파 성향 존재 등은 금리 상방 압력 요인으로 판단. 하지만, 최근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배제 영향 및 제조업 경기 위축이 시장 예상보다 심화되었다는 결과 등은 국내외 금리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미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 속에도 더딘 속도감 등으로 여전히 경계감 높은 가운데 주요 연준 당국자들의 금리인하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 매파 성향 등이 금리 상방 압력 요인으로 판단
  - 반면, 파월 의장의 추가 금리인상 배제 언급 등으로 인한 시장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가 상존한 가운데 최근 미 제조업 위축이 시장 예상보다 심화했다는 결과 등은 상기 국내외 금리 상승 추세를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ECB, 호주 등 주요국 물가 상승세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가능성 대두와 비둘기적 스탠스 등에 따른 영향이 국내외 금리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유로존 주요 국가 물가 지표가 통화 목표 근접하며 ECB의 6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호주 등 주요 국가 통화정책도 전반적인 비둘기적 흐름에 의한 영향 등이 국내외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유로존 인플레이션은 장기간 유지된 긴축 영향으로 완만한 둔화세 지속.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2.4% 상승하는 등의 영향으로 ECB는 6월 통화정책에서 연준에 앞서 금리인하 단행이 예상
  - 여기에 호주와 캐나다 등 주요 국가의 통화정책도 비둘기적 기조를 보이는 영향 등이 국내외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6월 국고채(3Y) 금리는 3.4%-3.60%상

- 대내적 2분기 수출 증가세가 지속한 가운데 국내 성장률 2.5% 상향과 향후 물가 전망의 상방 리스크 확대를 경계하는 다소 매파적 한은 성향 기조 등은 국고채 금리 상승 압력을 다소간 지속케 할 요인으로 예상
  - 국내 2분기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며 1분기 시장 예상을 뛰어넘은 성장률 등을 고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2.5%로 대폭 상향
  - 하지만, 여전히 국내 물가에 대한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향후 물가 전망에 대한 상방 리스크를 경계한 다소 매파적 분위기 지속 등이 국고채 금리 상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반면, 3개월 내 인하 소수 의견 존재 등에 대한 시장 기대 등은 금리 상승 추세를 다소 상쇄할 것으로 보임

###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수출 증가세 속에 성장률 전망 대폭 상향</li> <li>· 물가 상방 압력 리스크 상존 및 이를 경계하는 한은 매파 성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CB의 6월 금리인하 가능성 속에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가 중앙은행의 도버시 기조</li> <li>· 금리 인하에 대한 금통위 1인 소수 의견 존재</li> </ul>

자료: 하나은행

# 달러/원 환율

## 5월 동향

도비시하게 해석된 5월 FOMC와 미국 고용시장 둔화 가능성에도 연준 당국자들의 매파적 스탠스와 더딘 디스인플레이션 추세 등이 글로벌 달러 강세 모멘텀을 자극하면서 1,380원대로 상승 마감

5월 FOMC에 대한 비둘기적 평가와 미 고용 둔화 조짐 속 환율 하락 출발했으나 스웨덴 중앙은행 금리인하 결정과 연준 인사의 피벗 기대 견제 발언에 달러지수는 105선을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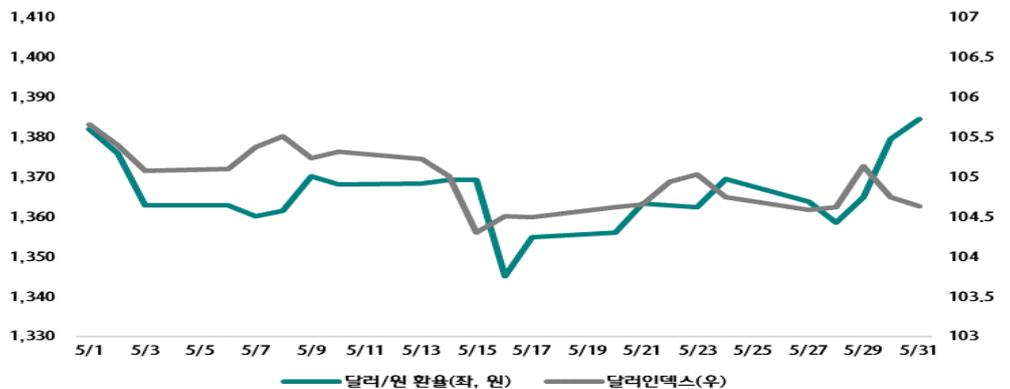
미국 물가지수와 소비지표 둔화에 의한 연준 금리인하 기대 강화에 1,340원대로 급락 후 5월 FOMC 의사록 내 긴축 재개 가능성 언급 등에 완화 강세의 되돌림을 시현

미국 서비스업 경기 호조와 미 국채 발행 부담 속 국채수익률 상승 등에 달러 강세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증시 외국인 매도세에 따른 완화 약세 압력 우려 속 1,380원대 중반으로 상승 마감

- 월초, 파월 연준 의장의 완화적 스탠스와 예상치를 하회한 미국 비농업 고용 데이터에도 주요국 간 통화정책 차별화와 일부 Fed 인사의 매파 발언에 강달러 나타나며 되돌림 장세 시현
  - 월초, 5월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추가 긴축 가능성을 배제한 데 따른 안도감에 환율은 하락 출발 후 예상보다 둔화된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에 의한 연준 금리인하 기대 회복에 추가 하락
  - 그러나 스웨덴 중앙은행의 선제적 금리인하와 일부 Fed 관계자의 매파 발언 등에 연준과 주요국 간 금리인하 시기 차별화가 재부각된 측면이 글로벌 달러 강세를 지지하면서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
- 월 중반, 연준 당국자들의 신중한 기조 속 환율 상승세 이어졌으나 미국 4월 CPI 둔화와 그에 따른 금리인하 기대감 강화에 1,340원대로 급락 후 매파적 FOMC 의사록 확인 후 재차 상승
  - 중반, 미국 기대인플레이션 상승과 매파 성향 연준 인사의 추가 금리인상 발언 등에 환율은 추가 상승했으나 미국 4월 CPI와 소매판매 지표 둔화로 인한 달러 강세 완화와 위험선호 심리에 큰 폭 하락
  - 연준 위원들의 금리인하 신중론 강조와 추가 긴축 의견이 제시된 5월 FOMC의사록에 의한 피벗 기대 되돌림에 상승 전환 후 5월 금통위에서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 견제한 영향으로 추가 상승은 제한
- 후반, 미국 서비스업 경기 확장세와 미 국채 수요 부진 영향 속 미 국채금리 상승에 달러 강세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순매도 영향 더해지며 1,380원대 중반에서 마감
  - 후반, 예상을 웃돈 미국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등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에 따른 달러 지지력과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도 등에 완화 약세 나타났으나 수급상 수출업체 매도 물량 유입에 소폭 하락
  - 미국 1분기 GDP 잠정치의 하향 조정에도 미 국채 공급 부담으로 인한 미 국채수익률 상승이 달러 강세로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증시 부진 속 외국인 매도세 지속으로 상승하며 1380원대 재진입 마감

5월 달러/원 평균환율 : 1,365.9  
5월말 달러/원 환율 : 1,384.5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



## 6 월 전망

인플레이션 경계감 잔존하는 가운데 연준의 일부 매파 성향과 주요국 간 통화정책 다이버전스에 따른 달러 강세 기조 지속 예상되나 미국 경기 냉각 시그널과 국내 경기회복 기대감 등은 환율 상단 제한할 전망

평균	1Q24	2Q24	3Q24	4Q24
달러/원 환율(원)	1,329	1,370 <sup>(F)</sup>	1,330 <sup>(F)</sup>	1,295 <sup>(F)</sup>

미국 물가 경로 불확실성에 따른 연준 피벗 시점 이연과 일부 위원의 매파 성향 지속에 대한 경계감이 달러 강세 지지할 전망. 다만,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의 예상 부합과 경기 둔화 우려 등에 상승 압력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

미국과 주요국 간 통화정책 차별화 국면 속 ECB의 금리인하 개시될 경우 달러 강세 나타나겠으나, 국내 경제성장을 상향 조정과 양호한 수출 개선세 등은 원화 가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6월 달러/원 환율  
1,365원 ~1,390원 예상

- 예상에 부합한 미국 물가지수와 경기 둔화 조짐 등에 달러 강세 압력은 완화되겠지만, 여전히 한 물가 경로 불확실성과 일부 연준 인사들의 매파 기조 유지 가능성 등이 환율 변동성 확대에 영향을 미칠 전망
  - 미국 5월 PCE 등 물가지표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둔화된 점과 제조업 경기 위축세 등이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우려를 일부 완화시키며 단기적으로 위험선호 심리를 자극할 요인으로 판단
  - 그러나 기저효과 등으로 인한 미국 물가 경로 불확실성에 따른 경계감과 물가 목표 2%와의 갭치가 유지되는 국면을 고려한 일부 연준 위원들의 매파 성향 유지 등이 환율 하단을 제한할 전망
- 주요국 통화정책이 차별화되는 가운데 ECB가 6월 첫 금리인하에 나설 경우 글로벌 긴축 기조 완화 전망 속 연준의 제약적 정책 스탠스가 부각되며 달러 강세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
  - 미국 외 주요국 디스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완화 기조로의 전환 국면이 연준의 상대적 금리인하 지연 우려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ECB 금리인하 개시 시점에서 달러 강세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
  - 여기에 최근 미국 소매판매, ISM 제조업 PMI 등 일부 경제지표가 둔화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미국 노동시장에 대한 경계심리 등은 강달러 모멘텀 지속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판단
- 한은의 경제성장을 상향 수정과 물가압력 지속 우려로 매파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교역조건 연속 개선에 따른 국내 외국인 자본 유입 기대감 등은 원화의 추가 약세를 제한할 전망
  - 한은 5월 금통위에서의 1분기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과 물가 전망의 상방 리스크 확대를 반영한 정책 조기 전환 리스크 경계감 등 매파 성향 유지할 측면은 원화 약세 압력을 완화할 요인으로 판단
  - 또한, 반도체 등 IT 및 자동차 부문 기반 수출 연속 증가세와 대중국 수출 회복세에 따른 외국인 자본 유입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원화의 대외적 약세 요인을 제한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과 연준 당국자들의 매파 성향 지속</li> <li>· ECB의 6월 금리인하 전망 등 연준 외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기조 완화 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경제성장을 상향 조정과 물가 상방 리스크 등에 따른 한은의 통화정책 전환 기대 제한</li> <li>· 한국 수출 증가와 경기 회복 기대에 의한 자본 유입 예상</li> </ul>

자료: 하나은행

# 이종통화

## 엔/원 전망

5월 달러/엔 평균환율 : 155.8

5월 엔/원 평균환율 : 876.6

6월 엔/원 예상범위 : 865~885원

**일본 경제 성장을 마이너스 재진입 가능성 농후한 가운데 BOJ 통화약세 의지가 여전히 유효한 점이 일본 내부적 엔화 약세 지지할 전망. 여기에 연준 매파 성향으로 인한 미-일 금리차 확대 가능성도 엔화 약세 요인으로 판단**

- (엔화 동향)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인하 가능성 시사와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 둔화 등에 엔화는 급격한 강세 시현했으나 연준 당국자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며 약세로 전환. 중반, 미국 4월 CPI 둔화에도 Fed 관계자들이 신중한 정책기조를 강조한 영향으로 엔화의 약세 기조 지속. 후반, 미 국채 입찰 수요 부진에 따른 미 국채금리 상승이 엔화 약세를 견인했으나 미국 GDP 하향 조정과 PCE 둔화 등에 추가 약세는 제한되며 157엔대에서 마감
- (엔/원 전망) 최근 미국 물가지표 둔화에도 목표에 이르지 못한 점을 강조한 연준 당국자들의 매파 성향에 따른 미-일 금리차는 엔화 약세를 지지하는 형국. 여기에 일본 시장 참가자의 7월 금리 인상 기대가 여전히 높긴 하나, 일본 1분기 성장률이 재차 마이너스 국면을 보일 전망 등에 따른 BOJ의 통화완화적 기조 지속 등으로 정상화 지연 이슈 반영되며 엔화는 157엔을 상향하는 약세 기조 우위 나타낼 것으로 예상
  - 최근 미 PCE 물가 시장 예상 부합에도 연준 당국자들의 금리인하 당분간 지속 언급 등에 따른 매파 성향으로 미-일 금리차가 유지되는 형국 등이 엔화 약세 지지할 전망
  - 여기에 여전히 활력이 낮은 경기 동력에 대한 BOJ의 통화 완화 유지 등도 엔화 약세 요인. 이에 엔/원 환율은 BOJ 개입 등에도 미국 물가 하락 등에 따른 원화 상대적 강세 속 865~880원 사이 등락이 예상

## 유로/원 전망

5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0811

5월 유로/원 평균환율 : 1,476.6

6월 유로/원 예상범위 : 1,460~1,495원

**유로 일부 국가 수출 회복 등에도 역내 제조업 PMI 재반락 등 성장 모멘텀이 여전히 미약한 가운데 6월 ECB의 금리인하 가능성 강화 속에 추가 금리인하 기대 요인 등으로 유로 약세 흐름이 예상**

- (유로화 동향) 미국 ISM 제조업지수 부진과 미국 고용 냉각 조짐 등을 반영한 연준 금리인하 기대에 유로화는 강세 출발. 중반, ECB 통화정책결정회의 의사록 내 6월 금리인하 가능성 언급에도 미국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로 인한 위험선호 심리가 유로화에 지지력을 부여하며 추가 강세. 후반, ECB 위원들의 비둘기 발언과 기정사실화된 6월 금리인하 전망 등에 강세폭 일부 되돌렸으나 미국과 달러 유로존 5월 물가지표가 반등한 측면이 대비되며 강세 전환 후 마감
- 독일 수출 경기가 (+) 전환했음에도 4월 유로존 제조업 PMI 재반락 등 여전히 경기 활력이 약화된 상황. 한편, 물가의 지속적 하락 추세 속에 상기 경기 상황 고려 등에 의해 ECB는 6월 금리인하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통화정책 회의 이후 유로화는 달러 대비 약세 기조가 우위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가 금리 인하 배제 못하는 상황 또한 약세 지지 요인으로 예상
  - 유로존 4월 제조업 PMI 재반락 영향 등 경기 모멘텀 부재가 이어지는 국면 속에 최근 물가 2% 중반 지속에 따른 6월 금리 인하 단행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달러 대비 유로 약세 기조 전환이 예상
  - 상기 유로 금리 인하 단행 이후로도 ECB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상대적 원화 강세 흐름으로 인해 유로/원은 1,470원 전후 흐름 등락이 예상

#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4년 6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b>6월 주요 ISSUE</b>	<b>1</b>
					OPEC+ 정례회의(6/1) ECB 통화정책회의(경제전망)(6/6) 미국 FOMC(경제전망)(6/11~12) BOJ 금융정책위원회(6/13~14) G7 정상회의(6/13~15) 우크라이나 평화회의(6/15~16) BOE 통화정책회의(6/20) EU 정상회의(6/27~28) WB 경제전망보고서(6월중)	[OPEC+ 정례회의] (1) OPEC+ 회원국들의 원유 생산량 결정하는 정례회의, 러시아 최근 증산 가능성 언급 (2) 중동 지정학적 불안 이어지는 상황에서 하루 220만 배럴 감소 조치 연장할 지 관심 중앙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국제선 유류할증료 5개월 만에 인하 :10단계에서 9단계로 1단계 인하  한 5월 수출/입(YoY +13.8%, +5.4%)
<b>2</b>	<b>3</b>	<b>4</b>	<b>5 지준일</b>	<b>6 한국 휴장, ECB 통화정책회의</b>	<b>7 미국 고용보고서</b>	<b>8</b>
<b>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b> : 환율심층분석곡, 관철대상국 등 지정	한 5월 S&P글로벌 제조업 PMI 미 4월 건설지출(MoM -0.2%) 5월 S&P글로벌 제조업 PMI[F] ISM 제조업, 구매물가, 고용 중 5월 Caixin 제조업 PMI(51.4) 유 5월 HCOB 제조업 PMI[F] 일 1Q 자본지출(YoY +16.4%) 5월 자본 운영 제조업 PMI[F]	한 5월 CPI(MoM +0.0%, YoY +2.9%) CPI 근원(YoY +2.3%) 미 4월 구인이직보고서 구인건수 제조업수주(MoM +1.6%) 내구재주분, 근원 내구재주분[F] 독 5월 실업자변동	한 1Q GDP[P](QoQ +1.3%, YoY +3.4%) 미 5월 ADP취업자 변동(192k) S&P글로벌 서비스업, 종합 PMI[F] ISM 서비스, 고용, 신규주분 중 5월 Caixin 종합, 서비스업 PMI(52.8, 52.5) 유 4월 PPI(MoM -0.4%, YoY -7.8%) 5월 HCOB 종합, 서비스업 PMI[F] 일 4월 실적 임금총액(YoY -2.5%) 5월 자본 은행 서비스, 종합 PMI[F]	<b>[휴장] 한국(연중일)</b> <b>ECB 통화정책회의</b>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4.5%로 5연속 동결. 이번 6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존재 <b>유럽의회 선거(~9)</b> 미 1Q 비농업부문 노동생산성[F](QoQ +0.3%) 단위노동비용[F](QoQ +4.7%) 5월 Challenger Job Cuts(YoY -3.3%) 유 4월 소매판매(MoM -0.4%, YoY -7.8%)	미 4월 도매무역(MoM -1.3%), 도매재고[F] 소비자신용지수 5월 비농업부문의 고용자 변동(175k) 제조업임금변동, 실업률(YoY +3.9%) 시간당 평균 임금(MoM +0.2%) 중 5월 수출/입(YoY +1.5%, +8.4%) 유 1Q GDP, 고용[F] 일 4월 가계 소비지출(YoY -1.2%) 동행지수, 선행지수[P]	
<b>9</b>	<b>10 애플 WWDC(~14)</b>	<b>11 미국 FOMC(~12)</b>	<b>12 미국 CPI</b>	<b>13 선별· 옵션 등시만기일, BOJ 회의</b>	<b>14 코스피200, 코스닥150 정기변경</b>	<b>15 우크라이나 평화회의(~16)</b>
	<b>[휴장] 중국, 대만, 홍콩 (단오절)</b> 유 6월 섀넥스 투자자기대지수(-3.6) 일 1Q GDP[F](QoQ -0.5%, YoY -2.0%) GDP 민간소비[F](QoQ -0.7%) 5월 경기관찰조사 연행, 전망	<b>[미국 FOMC(~12)]</b> (1) 지난 회의에서 정책금리 5.25%~5.50%로 6연속 동결 (2) 연준 금리 인하 시기 지연 속 6월 회의에서 발표될 경제전망, 점도표 등에 주목 <b>한국 5월 금통위 의사록 공개</b> 한 6월 1~10일 수출/입(YoY +16.5%, -6.7%) 미 5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89.7)	한 5월 실업률(2.8%) 미 5월 CPI(MoM +0.3%, YoY +3.4%) CPI 근원(MoM +0.3%, YoY +3.6%) 실질 평균 시간당 임금(YoY +0.5%) 중 5월 PPI, CPI(YoY -2.5%, +0.3%) 일 5월 PPI(MoM +0.9%, YoY +0.3%) 독 5월 CPI (YoY, 2.4%)	선별· 옵션 등시만기일 <b>BOJ 금융정책위원회(~14)</b>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0~0.1%로 동결 미 5월 PPI(MoM +0.5%, YoY +2.2%) PPI 근원(MoM +0.5%, YoY +2.4%) 유 4월 산업생산(MoM +0.6%, YoY -1.0%) 일 2Q BSI 대형 제조업, 전업중 4월 설비가동률, 광공업생산[F], 3차산업지수	한 5월 수입물가(MoM +3.9%, YoY +2.9%) 수출물가(MoM +4.1%, YoY +6.2%) 6월 통화공급 M2(MoM +1.6%) 미 5월 수입물가(MoM +0.9%, YoY +1.1%) 수출물가(MoM +0.5%, YoY -1.0%) 6월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연향[P]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P]	우크라이나 평화회의(~16) : 우크라이나 중전 방안 등 협의할 예정
<b>16</b>	<b>17</b>	<b>18 RBA 통화정책회의</b>	<b>19 [휴장] 미국(노에에방일)</b>	<b>20 BOE 통화정책회의</b>	<b>21</b>	<b>22</b>
	미 6월 뉴욕주 제조업지수(-15.6) 중 5월 광공업생산(YoY +6.7%) 실업률(5.0%) 소매판매(YoY +2.3%), 부동산 투자 유 1Q 노동비용(YoY +3.4%) 일 4월 핵심지계수주	RBA 통화정책회의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4.35%로 4연속 동결  미 5월 소매판매(MoM +0.0%) 소매판매 근원(MoM +0.2%) 광공업생산, 설비가동률(78.4%) 6월 뉴욕 연준 서비스업 경기활동(3) 유 5월 CPI(MoM +0.6%, YoY +2.4%) CPI 근원[F](MoM +0.7%, YoY	<b>[휴장] 미국(노에에방일)</b> BOJ 4월 금정위 의사록 공개  미 6월 NAHB 주택시장지수(45) 유 4월 건설 생산(MoM +1.8%) 일 5월 수출/입(YoY +8.3%, +8.3%)	<b>BOE 통화정책회의</b>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5.25%로 6연속 동결. 이번 6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존재  미 5월 주택착공건수(MoM +5.7%) 건축허가(MoM -3.0%) 6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4.5) 유 6월 소비자자기대지수[P]	한 5월 PPI(MoM +0.3%, YoY +1.8%) 6월 1~20일 수출/입(YoY +1.5%, -9.8%) 미 5월 기준주택매매(MoM -1.9%) 선행지수(MoM -0.6%) 6월 S&P글로벌 제조, 서비스, 종합 PMI[P] 유 6월 HCOB 제조업, 서비스업, 종합 PMI[F] 일 5월 전국, 국내 CPI, 국내 CPI 근원 6월 자본 운영 종합, 제조업, 서비스 PMI[F]	
<b>23/30</b>	<b>24</b>	<b>25</b>	<b>26</b>	<b>27</b>	<b>28</b>	<b>29</b>
<b>[일말]</b> 기재부 경제 로드맵 3개년 계획 발표	BOJ 6월 금정위 요약본 공개 한 5월 소매판매 백화점, 할인점 매출 미 6월 델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유 5월 ECB 1년, 3년 CPI 기대	한 6월 소비자심리지수(98.4) 미 4월 FHFA 주택가격지수 5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 6월 필라델피아 연준 비제조업 활동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자기대지수 리치몬드 연준 제조업지수 델러스 연준 서비스업 활동 일 4월 선행지수, 동행지수[F] 5월 PPI 서비스	<b>한국 금융안정회의</b> : 최근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이며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7/11일(목)  미 5월 신규주택매매 호 5월 CPI YoY (3.6%) 독 7월 GfK 소비자자기대지수(-20.9)	<b>EU 정상회의(~28)</b> 한 7월 기업경기실사 비제조업, 제조업 미 1Q GDP, GDP 물가지수, 개인소비 5월 내구재 주문[P] 소매재고, 도매재고[P] 미결주택매매 중 5월 산업생산 유 6월 소비자자기대지수[F] 서비스, 산업, 경기자기대지수 일 5월 소매판매, 백화점, 슈퍼마켓 매출	한 5월 광공업생산 미 5월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수, 실질 개인소비 PCE 디플레이터, PCE 근원 디플레이터 6월 MNI 시카고 PMI 컨자스미터 연준 서비스업 활동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연향[F]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F] 일 5월 실업률, 광공업생산 주택착공건수, 연간 주택착공지수 6월 도쿄 CPI, CPI 근원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